

담대해라 (자를 것을 자르고 담대해라)

본 문 여호수아 1장 9절

『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
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
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
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
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』

1. <담대해라>는 말은 가나안 복지를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. 그때는 <여호수아의 대적, 여호수아와 겨루는 여리고 성 사람들>이 ‘여호수아의 군대’ 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었다.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하니,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“담대해라!” 말씀하신 것이다.
2.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? 하나님은 “너는 혼자가 아니다. 너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, 나 여호와와 함께하니 담대해라.”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.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힘들지 않게 쉬운 방법으로 행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.

3. <목적지 앞>에는 ‘좋은 것’ 이 있으나, 과정 중에 ‘어려운 것’ 이 있다. 그럴지라도 담대해야 된다. 왜?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주가 함께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이다. 고로 강하고 담대해라.
4. <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>에는 ‘걱정, 근심’ 이 없다.
5.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‘목적’ 을 두고 가는 중에 여호수아 앞의 여리고 성 같은 ‘어려움’ 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함께하시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. 그리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이겼듯이, 이기게 된다.
6.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,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돌다가,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 돌았다. 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,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다.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행했다. 이와 같이 <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행하는 것>이 ‘담대한 것’ 이다.
7. 대개 사람들을 보면, <좋은 목적지>가 있는데 ‘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’ 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한다. <하나님의 역사>도 그러했다.
8. 절대적으로 <주>와 함께 가야 된다.
9. <주>가 있으니, 주를 믿고 주와 함께 담대하게 가야 된다. 그리

하면 여리고 성 무너지듯이 자기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무너지고, 자기와 겨루던 것들이 무너진다. - 이는 아예 예정되어 있다. 고로 주와 같이 행하여라.

10. <사명자>는 담대했다. 왜? <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>을 절대시하고 행했기 때문이다. 또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‘사명자의 육’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에, 시대 여리고 성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다.

11. <시대 여리고 성>이란, ‘악한 자’요, ‘무지자’요, ‘가인 같은 자’요, ‘주께 좋게 한다고 하나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자’다. 그리고 ‘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, 평탄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험하게 하는 자들’이다.

12. <지난날 겪은 것>과 <시대의 과거>를 깨닫고,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함께하니 담대히 행하면, 이는 마치 ‘동에서 해가 뜨는 것’ 같아서 어둠의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.

<전환>

13. <길게 뻗은 나뭇가지>를 안 자르면, 바람이 불거나 눈이 왔을 때 가지가 부러진다. 혹은 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다. 고로 ‘길게 뻗은 나뭇가지’는 꼭 잘라야 된다. 이와 같이 <섭리역사를 뛰고 달릴 때>도 ‘잘못된 것들’은 가차 없이 잘라야 된다.

14. <월명동 자연성전>도 ‘대둔산을 가리던 높은 가지들’을 잘라

버리니, 대둔산이 잘 보인다. 이와 같이 <자기 잘못>도 가차 없이 잘라야 된다.

15. <무지>를 잘라야 된다.

16. <상대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주는 성격>을 잘라야 된다.

17. <자기의 단점>과 <모순>을 잘라야 된다.

18. <잘라야 할 것>을 안 자르면, 마치 가지가 대둔산을 가려서 안 보이듯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인다.

19. 사람은 ‘자르고 잇는 일’을 잘해야 됩니다. 이 두 가지의 삶이 참으로 중하다.

20. 자를 때 못 자르면, 도리어 ‘해’가 되어 <자기>를 괴롭히고 <자기 주변 사람들>을 괴롭힌다.

21. <자르기>는 꼭 필요하다. <옷을 만들 때>도 ‘자를 부분’을 잘라야 옷이 된다. <개발할 때>도 ‘자를 산’을 잘라야 개발이 된다.

22. <구시대>는 가차 없이 ‘잘라야’ 된다. <새 시대>는 ‘이어야’ 된다.

23. <구시대> 자르기, <새 시대> 잇기다.

24. <자기 생각> 자르기, <주의 생각> 잇기다.

25. 흔히 사람들을 보면, <주를 위해서 하는 일>이라고 하면서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한다. 이는 <자기 생각 차원>에서 하기 때문이다.

26. 주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지나지체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자를 두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이야기하면, “그렇지 않다.” 하고 말씀하신다. 고로 과감하게 자르고, 담대하게 행해야 된다.

27. <주의 생각 차원>에서 생각하면, 자기 생각과 다르다.

28. <하나님의 생각 차원>에서 생각하면, ‘걱정’ 이 없다. <염려>가 없다. <불안할 것>도 없다.

29. 어떤 일을 하든지 ‘자를 것’ 은 꼭 잘라야 된다.

30. 재미있다고 안 자르고, 기쁘다고 안 자르고, 누가 사랑해 준다고 안 자르고, 자기를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섬겨 준다고 안 자르면, 오히려 ‘해’ 가 된다.

31. <자기 삶>에서 ‘자를 것 자르기’ 다. 이것을 잘해야, 자기 삶에 크나큰 효력이 나타난다.

32. 자르지 못하면,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며 제 갈 길을 못 가게 된다.
33. <이성>을 자르고, <세상 사랑>을 자르고, <자기 주관>과 <자기 생각>을 자르고, <불의한 생각과 행위>를 잘라야 된다. 앞을 가리는 나뭇가지 자르듯, 담대히 잘라야 된다.
34. <자를 것>을 빨리 자르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시고 “답답하다.” 하신다. 성령님도 급제한 것 같다고 하시며 답답해하신다.
35. <시대 하늘 신부들>은 답답하게 살면 안 된다.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된다.
36. <시대 하늘 신부들>은 담대하게 살고, 하나님과 성령님의 속이 시원하시도록 살아야 됩니다.
37. <시대 하늘 신부들>은 빠릿빠릿해야 된다. <재치>있어야 된다. <슬기>있어야 된다. <지혜>가 차고 넘쳐야 된다. <눈빛>이 살아 있어야 된다.
38. <지도자들>은 먼저 알고,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된다. 가르쳐 줘도 안 되면, 본인들이 해야 된다.
39. <아는 자>가 하는 것이다.

40. 담대하지 않으면, <하나님이 주신 축복>을 받지 못한다.
41. 올해는 <축복의 해>다. <들어가도 복, 나와도 복을 받는 해>다. 담대해야,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.
42. 담대해야 <하나님이 주신 축복>을 얻게 된다.
43. <감사하는 자>가 ‘하나님의 궁’에 들어가고, <담대한 자>가 ‘주’를 가까이할 수 있다.
44. <담대한 자>가 약수를 많이도 먹고 병도 나았다.
45. <담대한 자>는 의식 없이, 거침없이 해 버린다.
46. <불의>를 자르지 않으면 ‘사탄’이 개입하지만, <불의>를 자르면 ‘사탄’이 다 떠나가 버린다.
47. <긴 머리>를 자르듯, <길게 뻗은 가지>를 자르듯, ‘불의, 걱정, 근심, 두려움, 각종 모순’을 가차 없이 잘라라.